읽기 쉬운 도표 속 부처님 생애



도표로읽는부처님생애
글 묘장/그림 배종훈
민족사 펴냄/1만 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생애를 그림과 표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더욱더 쉽게 불법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 구호 전문가로 유명한 묘장 스님(학도암 주지,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이 최근 펴낸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바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 부처님 생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처님 생애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생생히 담겨져 불자들에겐 경전만큼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이 책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님 삶을 화두 삼아 정진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묘장 스님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집필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몇 년 전 동일본과 네팔 대지진 당시 재난현장서 구호활동을 했다. 그때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전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면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의 안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분들 또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의 안온함을 느꼈다는 묘장 스님은 당신처럼 사람들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 같은 마음을 느끼길 첫손에 꼽았다.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로 생사의 재난 현장서 직접 구호활동하는 전문가의 체험 속에서 생긴 바람이기에 책 한 구절마다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부처님 생애는 전생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화현의 형태는 달랐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동일했습니다. 자리이타, 법을 구하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신 부처님의 전생은 시공을 초월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라고 부처님 생애의 중요성을 전한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저자는 특히 이 책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 실천을 강조한다. 사실 최근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생략하고, 역사적 사실과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자인 묘장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다.

스님이 이 책에서 '2장 전생의 지혜와 복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까닭도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 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삼세인과경 · 팔관재경〉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 출판해 법보시 운동을 펼치면서 "생각은 인과(因果) 속에 행동은 계율(戒律)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와 궤를 같이 하여 이 책에서도 인과를 도외시함으로써 벌어진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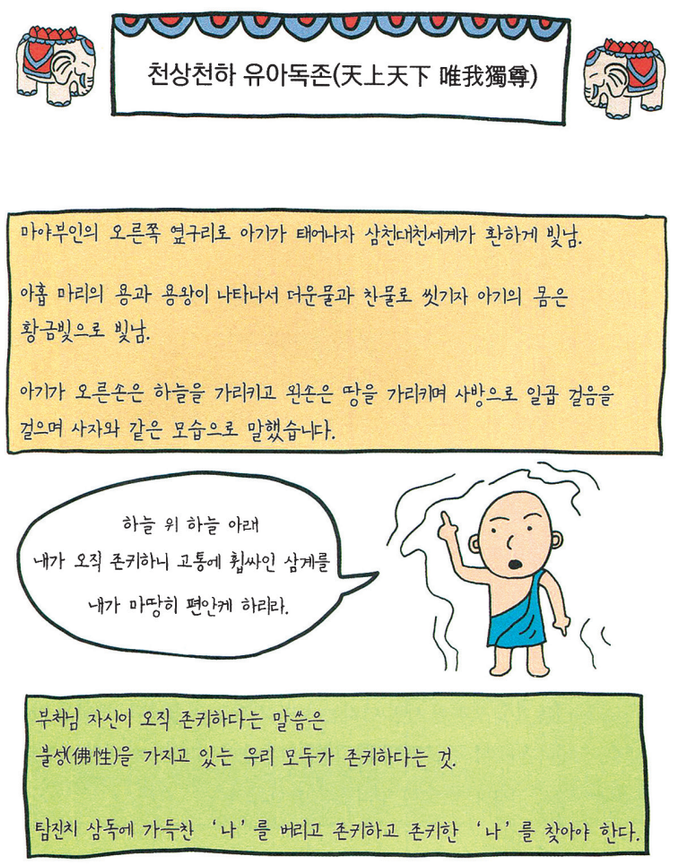
가치관의 혼돈시대, 충돌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라 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탄생게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살기를 발원하고 있다.

저자는 "부처님 탄생게는 온 우주를 울리는 일대 선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온 우주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수많은 생명들과 천신들의 스승이자 자비의 아버지이신 부처님의 존귀함은 물론이고 불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는 말씀, '삼계개고 아당안지(삼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가 편안케 하리라)'라는 자비 실천의 의지가 함께 녹아 있는 탄생게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온 우주서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을 가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뒷구절인 삼계개고 아당안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스님은 삼계개고 아당안지에 더욱 방점을 찍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본 면목은 고통스러운 중생을 편안하게 구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중계동 학도암 주지로서 전법하면서 유튜브서 '묘장 스님의 상기티칼리지'를 운영하고, 불교 복지 사업에 힘쓰고, 국제 구호 협력 기구를 설립하면서 '더 프라미스(약속)'라고 명명한 것도 '삼계개고 아당안지'라는 부처님과의 약속, 그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탄생게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자리서 구현하겠다는 바람으로 이름 지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직접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덮친 재난 현장을 찾아 진두지휘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치유해 준 것도 스스로 약속한 '부처님처럼 살기'의 한 단면이다.

"독자에게 잘 읽히지 않는 책은 종이의 원료인 나무에게도 미안한 일이기에 한번 책장을 열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일상 용어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스님의 말처럼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이다.

한편 대소승을 막론하고 부처님 일대기가 담긴 경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 "부처님의 생애가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곁에 가까이 살아 계시던 분의 생생한 이야기로 느껴지길 기대하면서 썼다."는 스님의 말처럼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과 한결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배종훈 작가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카툰과 도표 또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해 준다.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써내려간 부처님 생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비중을 실은 까닭은
부처님 삶을 화두 삼아 정진하며 집필해서다
쉽게 읽히는 일상어와 트렌디한 카툰도 '눈길'

▲저자 **묘장 스님**은?

1991년 직지사서 웅산 스님을 은사로 녹원 대종사를 계사로 득도했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구호 전문가로 부처님의 자비를 지구촌 곳곳에 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도리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BTN '묘장 스님의 생각'을 진행하였다. 현재 학도암 주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집행위원,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유튜브 묘장 스님의 상기티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역저로 〈삼세인과경 · 팔관재경〉이 있다. 아이티 대지진 조계종 의료봉사단 단장,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단장, 태국 대홍수 긴급구호단장, 네팔 대지진 합동지원단 단장, 포항 지진 긴급구호단장, 네팔 홍수 긴급구호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재난 구호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삶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진 중이다.

▲그림 **배종훈 작가**는?

2003년 '월간 불광' 연재를 시작으로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등의 월간 불교 잡지와 '현대불교신문' 등 교계 언론사에 삽화와 카툰을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다. 또한 여행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연꽃 향기로 오신 묘엄 스님〉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유럽을 그리다〉 〈행복한 명상카툰〉 〈내 마음의 죽비소리〉 〈자네 밥은 먹었는가〉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등이 있다. 2010년 불일미술관, 개인전(맑은 생각, 카툰 선을 만나다),

2014년 스페이스 선+, 2인전(마음이 추울 때 카투니카노 한잔 어때요), 2014년 불교박람회 & 붓다아트 페스티벌 기획 초대전, 2016년 스페이스 선+ 갤러리개인초대전 등의 선카툰전시회를 가졌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싯다르타 태자는 위슈와미뜨라와 삽바밋따로부터 베다와 베다의 부속학문을 배웠고 바라문들의 사상과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64개의 문자는 물론 수학과 논리학까지 공부한 태자는 승마와 창술, 궁술 등 29종의 군사학을 익힙니다. 비범했던 태자는 모든 학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배움은 태자의 명석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지혜와 올곧은 품성을 두루 겸비한 전륜성왕의 길을 가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p.52〉

"마라를 물리친 싯다르타가 말을 타고 나아갈 때 모든 천신과 브라만들은 주위를 호위했습니다. 6만 개의 횃불과 향기로운 꽃과 백단향 가루, 야크의 꼬리털로 만든 부채, 여러 가지 깃발을 들고 싯다르타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악기로 노래를 부르며 싯다르타의 앞날을 밝혀 주었습니다." 〈p.76〉

"보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를 아는 숙명통(宿命通)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업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밤중에 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중생계의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안통(天眼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과 더러움이 사라지는 누진통(漏盡通)을 얻게 됩니다. 순식간에 깨달음은 이뤄졌습니다. 새벽 시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쯤 깨달음은 완성되었습니다." 〈p.106〉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